

A MAGAZINE OF PERSPECTIVES



KOREAN->AMERICAN

누구세요?

우리는 North Carolina, Illinois, 그리고 California까지 포함한 전국에서 다양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그룹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전공들도 English, Moltox, 그리고 Political Science 등 다양합니다. 이 멤버들은 Korean 100BX 수업에서 모여 최고의 잡지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송혜진
인터넷 & 칼럼니스트

송혜진은 버클리 대학교에서 영어 전공을 하고 있고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부전공하고 있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녹차하고 "cookies & creme"이다. 둑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계속 살았고 버클리에 합격한 후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다.



박찰스
세계 여행자

찰스는 세계 여행자이다. 그는 죽기 전에 7개의 대륙을 모두 다 한 번씩 가보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는 90개 이상의 국가들과 6개의 대륙에 가봤고 그는 언젠가 남극을 가보고 싶어한다. 현재 UC Berkeley에서 EECS를 공부하고 있다.



유설아
패션 기자

설아는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썼다. 설아는 대학교 2학년 수학전공이고 언어를 배우는 걸 즐긴다.



황현희
졸업생

황현희는 4학년 졸업반에 있는 정치학UC Berkeley 학생이다. 아직은 졸업후에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윤희
래퍼 아님

윤희는 20년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죽기 전에 한 번 냉장고에 있는 식료품을 다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먹어보는 것이 꿈이다. 지금 UC Berkeley에서 Molecular Toxicology를 공부하는 중이다.



박정희 교수님
교수님 & 편집장

박정희 교수님은 2007년에 UCLA 대학교에서 응용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에서 M.Ed를 받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대답을 잘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KOREAN 100BX

이 잡지는 박정희 교수님의 지도자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Fashion



가방이랑 모자의 색깔을 맞춰서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살려준다.

Digital image. N.p., n.d. Web. 8 Apr. 2015. <<http://static.weloveshopping.com/shop/kenkosiam/FB-B13.jpg>>.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한국이 세계에서 1인당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은 ‘성형 대국’이라고도 불린다. 쌍꺼풀 수술은 이제 너무 흔해서 수술도 아니라고 한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니 한국인들은 옷도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패션도 남다르다.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신경 써서 안에 있는 마음과 성격보다는 자기의 외모에 더욱더 집착한다.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제일 ‘핫’한 브랜드나 ‘잇 아이템’을 주로 찾는다.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연예인의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을 좋아한



남자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 입는다. 블레이저로 레이어를 해서 꽃으로 포인트를 준다.

Digital image. N.p., n.d. Web. 8 Apr. 2015. <<http://en.rocketnews24.com/2013/06/07/korean-college-students-earn-an-a-in-fashion-%E3%80%90photo-gallery%E3%80%91/>>.



밝은 색깔에 예쁜 디자인
을 가진 여성스러운 가방

유행하는 밑에 글씨
가 쓰여진 모자



Digital image. N.p., n.d. Web. 8 Apr. 2015. <http://www.huffingtonpost.com/michael-hurt/korean-coed-street-fashion_b_5583907.html?>.

다.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나온 주인공이 입는 액세서리나 옷을 많이 산다. 하지만 불편한 사실은 다 똑같이 그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 하니 자기의 독특한 개성이 없어진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보다는 대중적인 스타일과 영향력 있는 패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기 보다는 똑같이 입으려고 하고, 똑같이 들으려고 하고, 똑같이 신으려고 한다.

버클리 대학교에서도 재미교포 학생들과 달리 한국에서 온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옷을 예쁘게 잘 입으려고 노력한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야 해도 여자들에겐 화장과 액세서리는 기본이다. 매고 다니는 가방도 유용한 것 보다 예쁘고 유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화장하는 것 도 재미교포들과 다르다. 한국인들은 하얗고 뽀얀 피부와 애교살이 있는 눈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얀 화장과 어려보이고 귀엽게 보이려고 애교살을 더 눈에 띄게 화장을 한다.

유학생과 재미교포는 똑같은 한국인들이지만 입는 옷 스타일이나 화장하는 것을 보면 두 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유행을 잘 따르고, 옷을 대부분 더 신경 써서 입는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눈에 띄는 것 같다.

- 유설아 -

Q & A: The Interview



유동훈 (유학생)

Q. 베클리 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유학생들과 재미교포 학생들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1) 제가 볼 때,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의 차이는 아무래도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에 의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다른 문화에 노출이 됨으로써 소통하는 방법이나 노는 방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Q. 한국 유학생으로서, 교포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개인적으로 한국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에 의해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들도 부모님, 친척들, 또는 친구들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Q. 교포학생들과 유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나 정서에서 다른 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따로 놀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가끔은 한국어를 더 편해하는 한국인들과 한국어에 서툰 한국계 미국인이 소통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따로 놀 수 있다 생각합니다.

Q. 한국하고 미국 교육 시스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선택했나요? 지금 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4) 한국의 교육문화는 너무 시스템 중심인 반면 미국은 좀 더 자유롭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며 더 글로벌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더불어 부모님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에 그 영향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결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CHUSEOK

The Favorite Korean Holiday



Chuseok

박찰스, 버클리 (100BX)

버클리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가장 즐기는 한국의 명절은 추석이다. 그 이유는 바로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함께 떠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친척 집에 가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시고 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지인들한테 선물을 보내셔야되는 부모님한테는 추석이 부담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담감이 없는 버클리 학생들은 마냥 추석을 즐길 수 있어서 추석을 더더욱 좋아하는 것 같다.

“엄마는 음식 준비하시라 할머니가 시키시는 심부름 하시라, 지금 생각해보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맛있는 음식만 먹고 사촌들과 즐거운 게임도 하고 뭐니뭐니해도 학교에 앉아도 된다는 점을 항상 즐겼던 것

같다.”라고 김모 학생은 말했다. “엄마는 옷에 기름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나는 옆에서 막 만든 전과 동그랑땡을 먹는 것이 아주 좋았었다.”

이렇게 학생들은 추석을 통해 평상시에 잘 못 보는 친척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점을 매우 좋아하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도 추석을 계속 즐길 줄 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은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고 가족이 다 같이 이민 온 학생들도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추석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 추석을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한다. 그러나 버클리에서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추석을 미국식으로 보낸다고 한다.

“옛날에 한국에서 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지만, 친구들끼리 추석을 보내는 것만의 재미가

있다.”라고 염모 학생은 말했다. “송편을 만들면서 ‘나는 송편을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쁜 딸을 낳을 거다’, ‘너는 못생긴 딸을 낳을 거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집에서 추석을 지낸다고 해도 할머니와 사촌들이 모두 한국에 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는 않고 그냥 전, 동그랑땡, 그리고 송편만 만들어서 버클리에서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것이 그다지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내 룸메이트들처럼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한테 한국의 문화적인 대사가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즐겁고 한국의 추석과 날짜가 같은 중국의 중추절을 대표하는 문 케이크를 먹는 것도 좋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일에는 추석 말고도 설날 등 여러 가지의 명절들이 있지만, 버클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한테는 설날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어려서 한국에 살았을 때는 용돈도 받고 웃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으면서 한 살 더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설날보다는 친구들과 추석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매년 추석마다 한국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전화가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빠, 큰엄마, 사촌들,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즐겁다.”라고 정모 학생은 말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의 명절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포함해서, 가족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은 버클리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가장 즐기는 한국의 명절이다.

L O S T I N TRANSLATION



intro. 한국어와 영어는 문법이 매우 다른 두 언어다. 그것 덕분에 한국어를 영어로 부끌때 실수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문제들을 피하고 싶은 자들을 위해 가장 자주 틀리는 문법 포인트를 모았다.

❶ articles.

한국 사람들은 번역할 때 특히 "a/an"과 "the"를 많이 틀리게 쓴다. 이것들은 영어로 "article"이라고 불러진다.

"THE": definite article. <명확한> 특정한 것에 대해 쓸때.

"A/AN": indefinite article. <명확하지 않은> 특정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쓸때.

EXAMPLE "I want to see **a** movie."
아무 영화나 상관 없이 보고 싶다는 뜻.

EXAMPLE "I want to see **the** movie."
어느 특정한 영화를 보고 싶다는 뜻.
아무 영화나 아니고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뜻..

❷ double negative.

"Have you eaten yet?" 이라고 물어보면 한국식으로 아진 안 먹었다고 대답하려면 "Yes, I haven't" 이라고 해야되지만 "No, I haven't" 이 영어로 맞은 말이다.

❸ impossible tenses.

"불가능한 시제들" – 동사 앞에 동사 하나더 추가하면 안된다.

EXAMPLE "She's eat broccoli." (X) -> "She ate broccoli." (O)
"I'm expect a good time." (X) -> "I'm expecting a good time." (O)
"She did hike of mountains." (X) -> "She hiked mountains." (O)

한국 유학생들의 음주 문화

한국 음주 문화란?

한국과 미국 음주 문화에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많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오는 경우,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음주 문화를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런 한국 음주 문화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은 버클리 주립대학에서도 흔히 볼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한미 학생들은 이런 문화에 접하지 않은 터, 같은 연령대와 같은 학생 또는 환경에 불구하고, 차이점들이 많다. 이런 차이점들은 특히 장소, 게임, 술 종류, 예절, 그리고 때와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에 많이 보인다.

한국 유학생들 보면, 주로 음주는 한국식 포장마차, 치킨집, 아니면 식당에서 한다. 특히 버클리에서는, ‘Holy Moly’, ‘OB Chicken’ 같은 식당에서 많이 어울린다. 이런 문화는, 한국사람들이 술마실때는 주로 안주나 음식이랑 음주 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마실 경우, 꼭 마른 안주 (땅콩, 오징어, 등등) 아니면 음식이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한국 유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음주와 음식을 한 후 다른 클럽 아니면, 바, 노래방 같은 대 가서 2차 또는 3차를 하는 것을 즐긴다.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실때, 그냥 소주나 맥주 마시는 것 보다, 섞어서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주로 찾는 술은 ‘소맥’, 소주 와 맥주를 섞은 술 종류, 아니면 칵테일 소주, 소주와 요구르트를 섞은 술이다. 한국 유학생들은 술마실 때에 전체 분위기를 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단체 술 게임들도 많다. 한국 유학생 김찬 (21, 버클리 주립대학교)씨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들은 술마시면 꼭 게임을 한다고 말했다. 어떤 게임을 하냐고 물어봤을때, 김찬씨는 이미지 게임, 눈치 게임, 배스킨 라빈스 31 과 같은 게임을 한다고 말했다. (게임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들은 미국에 와서도 음주 예절들은 잊지 않는다. 버클리 주립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보면, 지나가다도 선배에게 꼭 인사하는것을 잊지 않는다. 음주 할때도 이런 예절들이 분명히 있다. 특히,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마실 경우, 따를 때는 두손으로, 마실 때는 돌아서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이버). 그리고, 술잔이 비여있을 경우 혼자 자신의 술잔을 채우면 운이 나빠진다는 말도 있다.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특히 술을 언제 마셔야 된다는 개념은 없다. 학생들이니까 낯술은 하지 않지만, 한국 음주 문화는 음주에 대해서는 많이 개방적이어서, 마시고 싶을때 마시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때 간단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다. 한국 유학생, 이진아 (21, 버클리 주립대학교)씨에 따르면 한국사람들은 술 마시는것을 즐기고 놀때에는 꼭 해야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개념은 한국 음주 문화에 많이 쓰여지는 말 ‘취중진담’ 같은 단어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음주는 음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친화된 문화 때문에 다음날에도 또 만나서 같이 해장하게 해장국도 있다.

원래 글 자이론을 보면 된다.

한글은 디자인의 면에서 차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글자와 글자의 조합으로 글을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디자인에서 글자의 모양과 배치, 글의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글자는 글자마다 다른 모양과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의 분위기와 전달하려는 내용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거리는 글의 읽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글자本身的 모양과 형태도 글의 내용과 주제에 맞도록 조작되며, 글자 자체의 특성을 살리거나 드러내기도 한다. 글자와 글자, 글자와 문장,乃至 글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의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디자인은 글자 자체뿐만 아니라 글자와 글자, 글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글자와 글자, 글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글의 내용과 주제를 더 확장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글자만을 고려해 글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글자와 글자, 글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글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통해 글의 내용과 주제를 더 넓힐 수 있고, 글의 흐름과 분위기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디자인은 글자 자체뿐만 아니라 글자와 글자, 글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글자와 글자, 글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글의 내용과 주제를 더 확장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글자만을 고려해 글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글자와 글자, 글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글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통해 글의 내용과 주제를 더 넓힐 수 있고, 글의 흐름과 분위기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원래 글 자이론이 자이론

한글 글자 디자인

谷歌翻译 Google Translate 与 Google Translate API 互为补充，共同提供更全面的翻译服务。

Google translate

(O) “.”이 정답입니다. <– (X) “.”이 정답 아닙니다.

EXAMPLE "Sarah sees a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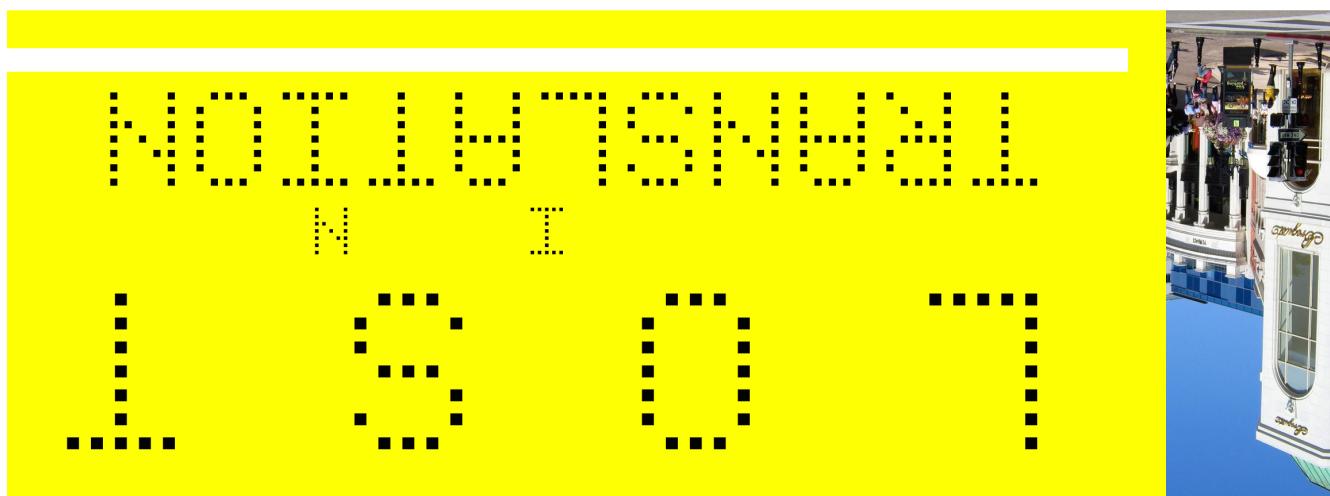
다음 예제에서 곰을 “subject+object+verb”로 봄 것이다.

Јерјо Рјом

(O) “도록한국”, <- (X) “도록한국”
 (O) “도록한”, <- (X) “도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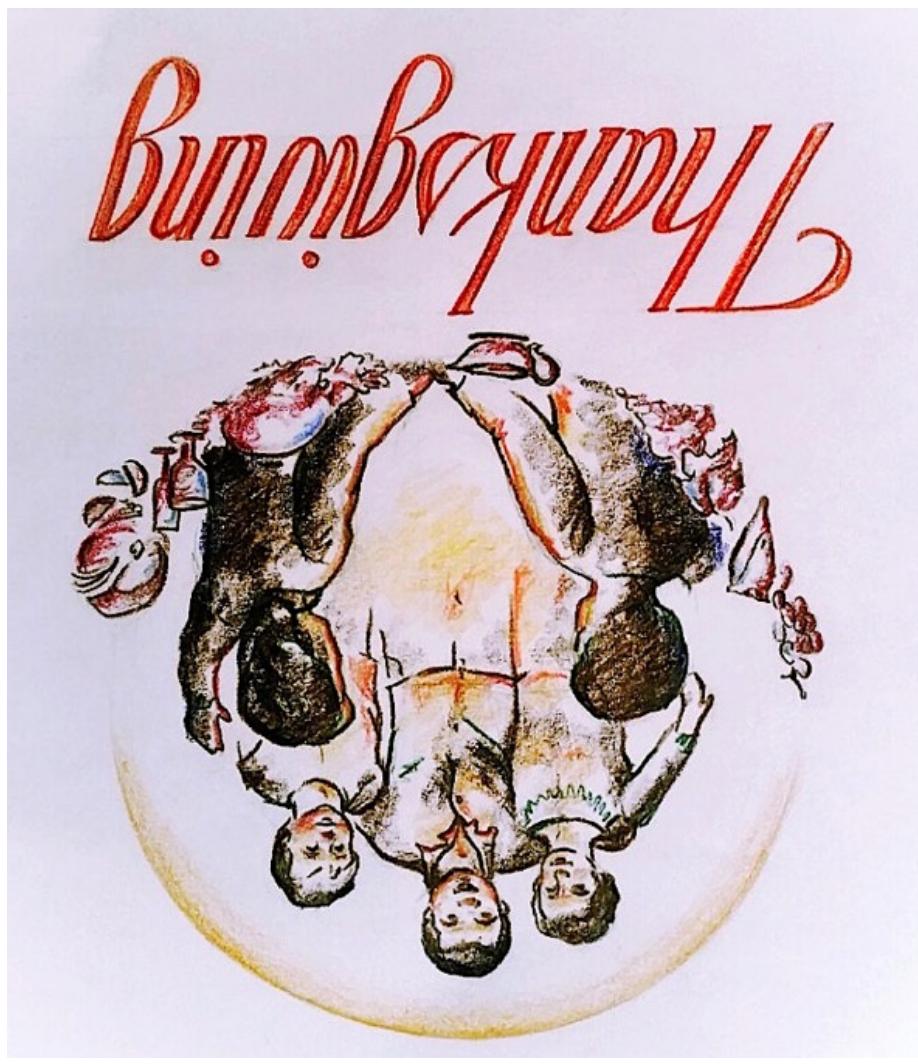
Action placement

한국어로 된 글은 한국어로 된 글입니다. 다른 글은 영어로 된 글입니다. 한국어로 된 글은 한국어로 된 글입니다.



THANKSGIVING

The Favorite American Holiday



문을 읽은 후에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내가 글을 읽었을 때는 그 글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글의 주제와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글의 문장 구조와 단어의 선택, 문장의 유연성 등은 글의 흐름과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글의 주제와 내용이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글을 읽은 후 어떤 감정이나 철학적인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글을 읽을 때는 주로 내용과 형식을 함께 고려합니다. 내용은 글의 주제와 전달하는 메시지를, 형식은 글의 구조와 문장 유연성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잘 조화된 글은 더 잘 이해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Q. 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나 철학적인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글을 읽을 때는 주로 내용과 형식을 함께 고려합니다. 내용은 글의 주제와 전달하는 메시지를, 형식은 글의 구조와 문장 유연성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잘 조화된 글은 더 잘 이해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Q. 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나 철학적인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글을 읽을 때는 주로 내용과 형식을 함께 고려합니다. 내용은 글의 주제와 전달하는 메시지를, 형식은 글의 구조와 문장 유연성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잘 조화된 글은 더 잘 이해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Q. 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나 철학적인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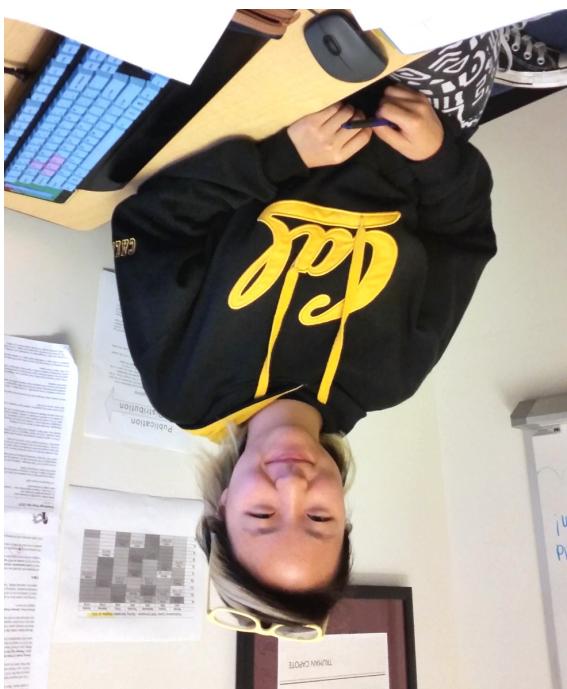
Q & A: The Interview



- 10 頁 -

한국의 전통 문학 작품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다양한 문학적 특징을 보여주며,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친 시(詩)와 소설(小說)은 특히 독특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전통 문학 작품의 특징과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들이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작자에게는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black backpack with a yellow bird logo on the bottom left corner.



한국의 전통 음악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뛰어넘어, 문화·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유행한 '금관'과 같은 관현악, 조선시대에는 '금당'이라는 대중적인 춤무대가 등장합니다. 정치·사회적인 면에서는 고려시대에는 '금관'이라는 관현악 체계가 형성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금당'이라는 대중적인 춤무대가 등장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고려시대에는 '금관'이라는 관현악 체계가 형성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금당'이라는 대중적인 춤무대가 등장했습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유행한 '금관'과 같은 관현악, 조선시대에는 '금당'이라는 대중적인 춤무대가 등장합니다. 정치·사회적인 면에서는 고려시대에는 '금관'이라는 관현악 체계가 형성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금당'이라는 대중적인 춤무대가 등장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고려시대에는 '금관'이라는 관현악 체계가 형성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금당'이라는 대중적인 춤무대가 등장했습니다.

Fashion

KOREAN 100BX



Junghee Park earned her Ph.D. in Applied Linguistics at UCLA. She received her M.A. in Applied Linguistics and TESL in 2002 from UCLA. Prior to that she obtained an M.Ed from the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She likes it when her students respond back to her questions.

The Professor & Chief Editor

Junghee Park



Yuhnee has two decades of experience in doing nothing in particular. Her life goals are to one day eat all of her groceries before the expire and to learn to fly. She currently studies毛道 at UC Berkeley.

Not a Reporter
Yuhnee Shin



Cindy is a 4th year UC student finishing up her undergraduate Years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with an emphasis in comparative politics. She is very uncertain of what is to come after graduation but is glad to be done.

The Graduate

Cindy Hwang



Soi Ah doesn't know anything about fashion but wrote it anyways. She hopes to one day become an international lawyer who can empower people through legal remedies.

Fashion Reporter
Soi Ah Yoo



Charles is a world traveler and hopes to complete his goal of visiting all 7 continents during his lifetime. He has visited over 90 countries and 6 continents and hopes to complete his studies by visiting Antarctica someday. He currently studies ECEs at UC Berkeley.

World Traveler

Charles Park



Haejin is a current UC Berkeley student who is majoring in English with a minor in Spanish and Korean. Her favorite ice-cream flavor is green tea and cookies & cream. She is from North Carolina and likes to say "y'all".

Interviewer & Columnist

Haejin Song

We're a group of students with various background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from Missouri to Political Science. Each member of our team has gathered under the focus of our studies also range widely, from English to Motivational Psychology to Political Science. We present to you Hello! F., Hello! F.

Who Are You?

MOTIVEPHOTOGRAPHY



A MAGAZINE OF PERSPECTIVES